

海洋연구소

“南極 진출로
선진 海洋國의
이미지부각”



許 亨 澤 소장

지난해는 國家海洋開發基本法の 立法으로 새로운 海洋時代가 전개될 기틀이 마련되었고, 歷史的인 南極進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만년동안 외세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미지세계에 대한 국민의 진출의욕을 함양시킬 수 있었던 해로써 매우 의의 깊은 한 해였다.

국내외의 새로운 해양질서에 발맞추어 연안수역과 5대양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으로 海洋開發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海洋開發基本法은 2000년대를 향한 海洋開發意志를 정부가 천명한 것으로 금년에 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구소의 확대개편이 예상된다.

또한 18번째로 남극과학기지가 완공됨에 따라 이 연구소는 南極資源開發研究를 통한 海外資源確保에 주력함과 동시에 제반 해양개발연구능력

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世宗南極科學基地 건설 및 운영

연구소 주관으로 건설되는 世宗南極科學基地는 西南極 킹조지섬의 Barton반도 동쪽 Marian cove연안에 위치(남위62°13, 서경 58°44')하고 있으며 1987년 12월 16일 착공, 1988년 3월말 완공예정이다.

건설규모는 총공사비 65억원이 투입되어 8개 동 420평으로 본관건물(53평), 주거동, 연구동, 하계연구동, 발전 및 식품저장동, 장비지원동, 지자기관측소 및 지진파관측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33번째 남극조약에 가입, 지난해 현지답사를 한뒤 기지선정 및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87년 8월 韓國南極科學委員會(KONCAR)가 창립되었다.

금년에는 夏季(11월~4월)에 20여명, 冬季(5월~10월)에 15명이 상주하면서 1단계로 ① 基地周邊의 海洋環境 및 資源부존량파악 ② 남극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활동 ③ 기지주변인접국들의 연구동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에 주력하고 점차 海洋, 地質, 地球物理, 生物, 大氣科學 등의 본격적인 극지연구를 통해 南極條約協議當事國(ATCP)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남극부존자원 및 개발기술 기반을 구축, 선진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海洋調査船·潛水艇母船建造事業과 올림픽호 운영

OECF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1,000톤급 綜合海洋調査船建造事業이 금년에는 세부설계에 들어가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1989년까지 총41억원이 투입되어 완공될 이 조사선은 해양조사를 위한 각종 특수장비 및 90여종의 조사장비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해역의 탐사개발능력을 확대 심화하는 동시에

국제해역탐사와 공동연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내최초의 有人潛水艦 “해양250”을 운용하기 위한 350톤급 母船도 그 설계가 끝나고 금년에 建造作業에 착수할 계획이다. 綜合海洋調査船과 潛水艦母船建造事業은 海洋科學技術 발전과 직결되는 중점과제만큼 그 설계 및 건조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인수받은 올림픽 5호, 21호, 33호, 34호를 올해에는 적극 활용하고 유인잠수정 “해양250”을 연8회 잠정운행하여 연근해해양 및 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1차 건설사업 완료

지난 1986년 경기도 안산시 연구학원단지로서 이전한 이 연구소는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27,821평의 부지에 4,625평의 본관 및 연구동, 연구실험동을 완공하였다.

금년은 7년에 걸친 1차건설사업이 완료되는 해로써 200평규모의 과학교육동과 기숙사 및 유치과학자숙소를 완공함과 아울러 주변의 조경과 운동장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研究開發事業 및 國際協力事業

지난해와 연계하여 올해에도 제6차 5개년과학기술발전 계획목표와 직결되고 국가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특정과제를 비롯하여 산업계애로지원 및 신기술기업화연구사업, 그리고 창의적 연구활동강화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주요과제는 “韓國海域綜合海洋資源圖作成研究” “해양기술개발과 산업화 전략연구” “海洋防衛기술개발연구” 등의 해양과학조사 및 기초공통기술연구,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연구” “남극반도 주변자원조사연구” 등의 해양자원개발기술연구, “연해환경보전기술개발연구” “해양유류오염방제처리기술연구”

등의 海洋環境保全 및 豫報技術研究, “해양구조물리최적설계모델개발연구” “연안역개발에 따른 力學모델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水産廳試驗研究機關으로 지정된 이 연구소는 올해에는 고부가가치의 魚種에 대한 시험양식과 연구를 통해 양식어업이 보다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高級魚種養殖技術開發에 주력함으로써 水産振興事業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사업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대책의 모색을 위한 韓·日食糧資源세미나, 黃海인접국의 해양자원관리를 위한 亞·太地域국제협력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국내외의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법세미나를 금년에는 보다더 발전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한국인 과학자를 적극 유치하여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해외훈련 및 전문가교류에도 비중을 두어 선진기술의 도입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海洋情報事業·海洋機器 修理較正事業

국내해양학계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관계문헌·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자체 개발한 On-line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검색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DeepSea Research, 한국해양학회지, 한국수산학회지 등을 계속 전산화 하는 한편 Continental Shelf Research, Acta Oceanologica Sinica, 해양연구 등을 전산입력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연구에 관련된 자료제공 및 정보교환을 통해 産·學·研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기기 수리 및 검·교정사업으로 올해는 각종 기기의 검·교정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국내 해양장비 표준화를 위한 기초과정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관련기관에 대한 해양관측 및 측정용 기·장비의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해양기·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축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